

1987년 이후 서울지역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평면의 내부공간 특성 변화

김 현 숙*(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주거학전공 석사)

최 정 신 (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전공 교수)

본 연구는 1987년 이후 서울지역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평면의 내부 공간 특성 변화를 조사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변화추이와 방향을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연구의 대상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특별시에 건설된 아파트 중, 전용면적 60㎡(17~19평) 내외의 단위평면 772개이고, 건설시기를 4기로 나누어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. 자료의 수집은 세진기획(2002년)에서 발간한 '아파트백과'를 참고하였다.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- 1) 현관 진입방식은 복도형과 계단실형 중, 복도형이 543개(70.3%), 계단실형이 229개(29.7%)로 나타났다. 건설시기가 후기로 오면서 계단실형이 증가하였다.
- 2) 침실 개수는 2개와 3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, 2침실형이 262개(33.9%), 3침실 형이 510개(66.1%)로 3침실형이 더욱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.
- 3) 실구성의 특성은 L+DK는 453개(58.7%), LDK는 319개(41.3%)로 L+DK형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.
- 4) 욕실은 전체 772개의 평면 중에서 제2욕실인 부부욕실이 설치된 곳이 29개의 평면에서 나타났다. 이는 종전의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서는 욕실 1개만 두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다.
- 5) 불박이 수납공간이 설치된 평면은 384(49.7%)개, 설치되지 않은 평면은 388(50.3%)개로 비슷하게 나타나 증가추세가 없었다.
- 6) 다용도실이 있는 평면은 214(27.7%)개, 없는 평면은 558 (72.3%) 개로 나타나 다용도실의 설치는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.
- 7) 발코니의 갯수는 1개~4개까지 나타났으며, 1개는 506(65.5%)개, 2개는 82(10.6%)개, 3개는 165(21.4%)개, 4개는 19(2.5%)개의 평면에서 나타나 건설시기별로 후기로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였다.
- 8) 전면 칸수(bay)는 2칸(bay)과 3칸(bay)이 있었고, 2칸(bay)이 745개 (96.5%)이고, 3칸(bay)이 27개(3.5%)로 나타나 2칸(bay)으로 구성된 평면이 많았다. 전면 칸수의 세부에 있어서는 다양한 평면이 많았다.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주택 규모의 변화 추이를 다음과 같이 예측 할 수 있다.

앞으로 현관진입방식은 복도형 보다는 계단실형이, 침실의 갯수는 2침실형보다 3침실형이, 실구성은 L+DK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발코니는 면적과 개수가 늘어나고, 부부욕실의 설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 반면, 불박이 수납공간과 다용도실의 설치는 점차 감소하며, 전면 칸수는 보다 다양한 평면형태가 출현하면서, 더욱 다양해 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.